

No. 2013-31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7. 29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참의원선거 압승에 따른 과제와 전망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1 일본경제지표

###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주 초반에는 참의원선거 압승에 따른 엔 매입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에는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약세로 전환
- 장기금리 :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매입(공개시장조작)과, 엔화환율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수요 증가로 하락세

구 분	7.22(월)	7.23(화)	7.24(수)	7.25(목)	7.26(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9.95	99.50	99.52	100.29	99.3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18.02	1,124.40	1,122.22	1,110.82	1,125.74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658.04	14,778.51	14,731.18	14,562.93	14,129.98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85	0.780	0.770	0.800	0.785

### □ 주요 거시경제지표

- 6월중 수출은 자동차 등의 호조에 따라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전월보다 축소
  - \* 對한국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對한국 무역흑자는 확대
- 6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

구분	2011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1.2(2.0)	4.1			-	-	-
수 출(천억엔)	653	639(637)	48	53	63	58	58	61
수 입(천억엔)	697	721(707)	64	61	66	67	68	62
對한국 수출	52.1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對한국 수입	32.9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226			-	-	-
對한국 투자	(24)	(40)	7.5			-	-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0	▲0.2(0.0)	▲0.3	0.1	0.3	0.3	0.2	0.0
실업율(%)	4.5	(4.4)	4.2	4.3	4.1	4.1	4.1	-
경상수지(천억엔)	76.2	42.9(47)	▲3.6	6.4	12.5	7.5	5.4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89.2	93.2	94.8	97.7	101.08	97.43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33	1,165.79
외환준비(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정치의 안정과 기업행동 : 파행 해소의 경제효과』 경제산업연구소, 7월 23일  
\*출처:[http://www.rieti.go.jp/jp/columns/a01\\_0375.html](http://www.rieti.go.jp/jp/columns/a01_0375.html)
- 『수출을 포함한 엔저의 수량효과』 제일생명경제연구소, 7월23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3\\_118.pdf](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3_118.pdf)
- 『2013년도 경제재정백서 : 경제의 선순환 확립을 위해』 일본내각부, 7월 24일  
\*출처:[http://www5.cao.go.jp/j-j/wp/wp-je13/index\\_pdf](http://www5.cao.go.jp/j-j/wp/wp-je13/index_pdf)

## ② 주간경제이슈 : 참의원선거 압승에 따른 과제와 전망

### □ 장기집권 발판 마련과 아베노믹스의 가속화

-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
  - 아베노믹스가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증세 문제를 비롯하여 TPP교섭과 원전 재가동 등 과제들도 산적
  -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소비세 증세나 외교 등 현안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앞으로 3년간은 본격적인 선거도 없기 때문에 안정된 정권운영이 가능

### □ 디플레이션 탈출, 최우선과제

- 아베 총리는 참의원선거 압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2015년까지 디플레탈출을 당면 최우선과제로 삼고 총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
  - 일본정부는 10월 임시국회에서 설비투자 감세와 기업재편 촉진지원책을 포함한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임
  - 아베 총리는 경제는 국력의 원천으로서 강한 경제 없이는 사회보장 재정기반은 물론, 안전보장과 외교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에 집중적으로 대처, 경제재생에 최우선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 소비세 증세 문제

- 일본정부는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여부를 올 가을에 최종 판단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디플레 탈출과 경제성장·재정재건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함
  - 소비세 증세는 경기악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증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법안의 재개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 그러나 소비세인상이 2014~2016년도의 실질GDP를 1.2~1.6%떨어트린다는 민간연구소의 전망과 하마다고이치(浜田宏一)예일대 명예교수도 소비세 인상이 일본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음

### □ TPP 교섭

- 여당의 압승으로 TPP교섭을 몰아붙일 기세이나 자민당 내 TPP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음
  - 일본은 7월 23일부터 정식교섭에 참가했는데, TPP는 관세철폐가 원칙으로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업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TPP교섭은 내년 봄까지가 고비로 자민당은 쌀과 밀 등 5개 농산품을 관세철폐의 예외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5개 품목 모두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음
  - 그러나 관세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섭탈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어 이들 의원들을 여하히 설득시킬 것인가가 주목

## □ 원전 문제

- 여당의 압승은 일단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에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야당은 원전제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안정성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재가동한다는 자민당의 주장에 여론이 일정부분 동조하고 있기 때문임
  - 초점은 재가동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 장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임
  - 자민당은 선거공약에서 지자체의 이해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조정에 주도력을 발휘하게 될지가 주목

## □ 주가·환율·금리 전망

- 여당의 압승에 따른 정권기반의 안정으로, 아베 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대담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가운데, 일본 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순풍으로 작용
- 환율은 아베정권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엔저흐름으로 어어 갈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들에서는 달러당 97~103엔 정도의 환율을 전망
- 장기금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림에 따라 채권의 매도압력이 강하여 완만한 상승이 예상(0.75%~0.95%)
  - 리스크 시나리오로 소비세 증세의 보류나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인한 소위 나쁜 금리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참의원선거의 결과 금융완화를 추진해온 구로다 일본은행총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베정권과 일본은행과의 관계가 당분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

## □ 한국경제에도 영향

- 아베노믹스가 가속화하는 경우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엔화약세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J커브(J-Curve)효과에 의한 일본기업들의 수출물량증가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따라 한국경제가 받는 영향은 달라질 것임
  -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경우,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엔저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효과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일본경제의 회복이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는 경우, 우리기업들이 받는 엔저의 타격은 축소되겠지만, 대신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및 자본·금융거래 등의 면에서의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3 경제정책동향

#### □ 일본 TPP교섭에 정식 참가

- 일본정부가 7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TPP교섭에 정식참가하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만회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
- 일본은 특히, 관심이 높은 관세교섭에서 쌀과 쇠고기 등 농산품의 관세를 가능한 한 유지시키는 한편, 자동차 등 일본의 수출상품에 부과되는 역내 관세는 철폐시키려는 입장임
  - 관세교섭은 각국의 이해가 품목별로 복잡다기하게 얽혀있어 교섭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국간 교섭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다수과공작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8월 하순에 개최되는 차기 교섭회의까지 분야별 교섭전략을 준비
  - 일본은 사전협약에서 미국에게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철폐를 가능한 한 유예해줌으로써 합의를 끝냈으나, 캐나다와 호주 등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개별 교섭이 필요
  -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여타국들과 연대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이 지키려 하는 쌀과 쇠고기 등 농산품에 관한 관세교섭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농업국을 상대로 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 일본이 농산품관세를 유지시키려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철폐에서 양보를 해야만 하는데, 11개국과 동시 병행적으로 교섭을 추진하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통신망을 개방하는 전기통신과 통관절차 등의 분야는 그동안 큰 틀에서 합의, 협정안 작성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을 조정 중
- TPP교섭은 한번 합의한 분야는 재교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선발 참가국들이 이미 결정한 분야에 일본이 관여하기는 어려움
- TPP교섭분야는 21개 분야인데, 이번 교섭에서는 13개 작업부회에서 논의,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등 5개 분야

## □ JETRO의 대일투자 및 수출 지원체제 강화

- JETRO가 외국기업 유치와 농수산물 수출 등의 지원체제 정비에 나섬
  - 대일투자지원 담당 직원의 수를 현재의 60명에서 앞으로 수년간 2배로 늘리는 한편, 일본산 쇠고기와 니혼슈(日本酒)와 같은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해외 대형소매상 등 수출처 리스트를 현재보다 40% 증가한 1,000개사로 늘릴 계획
- JETRO는 일본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성장전략(일본부흥전략)의 실행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2020년까지 2012년보다 2배가 많은 35조엔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일투자촉진본부」를 신설, 올 여름 대일투자촉진전략을 책정할 계획
- 일본으로의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현지 스태프 등을 대폭 늘려, 해외기업들의 상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JETRO의 해외사무소를 통해 수출대상기업들을 개척하고 일본산 제품정보를 제공
  - 일본 국내에서는 개별 농협 등 각 산지별로 수출상담 노하우 연수를 실시할 계획

## 4 일본기업동향

### □ 일본의 스마트폰 부품업체들,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처 개척

-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이 애플과 삼성에 이은 제 3의 공급처를 중국에서 개척
  - TDK는 화웨이기술(華為技術), 중흥통신(中興通訊 : ZTE)등에 대한 코일생산량을 20% 확대
    - 전기회로의 소음을 제거하는 코일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미 4~6월기간 중 20%정도 늘린데 이어 9월까지 다시 20% 늘릴 계획
  - 저팬디스플레이도 소형액정패널의 생산능력을 확대
    - 2012년도까지 미미했던 對중국공급 비율이 2013년도에는 10%대 전반까지 상승했는데, 특히 고정밀패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할 계획
  - 엘피다메모리도 소비전력이 적게 드는 모바일DRAM분야에서 중국 업체의 공급비율을 전체의 20%로 높임
  - 적층세라믹컨덴서와 표면파필터 등의 소형화분야에서 먼저 출발한 무라타 제작소도 최근 ZTE와 화웨이 외에 레노보그룹, 쿠파드 브랜드의 스마트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룡계산기통신과기(宇龍計算機通信科技)에 공급을 확대
  - 교세라는 수정진동자, 알프스전기는 카메라의 핀트를 맞추는 액츄에이터 분야에서 각각 중국 업체에 판매량을 확대
-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은 금년 중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차기 아이폰 외에 삼성에 대한 공급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7~9월 기간 중에는 가동율이 높아질 전망
  - 그러나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은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 등에 대한 공급확대로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임
- 일본 업체들이 강점이 있는 소형고성능제품에 대한 조회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는 신흥국들의 스마트폰시장 성장에 따라 저가품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애플과 삼성이 견인해왔던 종래의 스마트폰 시장은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부품업체들도 이익을 내고 있으나, 중국 업체들의 대두로 스마트폰의 저가화에 따른 부품의 단가하락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

## □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들, 중국에서 투자재개

- 작년 가을 중일 관계 악화로 투자를 중단했던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재개
  - 아케보노(曙)브레이크 공업과 코이토제작소(小糸製作所)가 생산능력 증강에 나서는가 하면, 덴소도 BMW의 신설 공장에 부품을 공급
- 일본차 판매회복이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다 구미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수요확보를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
  - 아케보노브레이크는 당초 2012년에 예정되어 있던 중국공장의 라인을 증설하는데, 2014년에 본격 가동하여 승용차용부품인 디스크브레이크의 생산능력을 2015년에 2013년 계획대비 2배로 증강
  - 투자액은 약 4억엔, 현지 일본계 업체에 공급하는 외에 구미 업체들로부터의 신규수주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코이토제작소는 조업을 연기하고 있는 중국의 신설공장에서 자동차용 램프의 생산을 9월에 개시, 작년 20억엔을 투자하여 금년 봄 가동예정이었으나 주요 고객인 일본 완성차업체에 대한 판매가 중일관계 영향으로 연기
  - 중국에서는 2개 생산거점에서 가동 후 전조등의 연간생산량능력이 3배인 150만대로 확대
- 중국시장에서 일본차 판매는 금년 5월부터 회복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토요타자동차와 혼다 등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고급차를 2015년 전후부터 현지 생산할 계획
- 부품업체들은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이관도 검토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강점이 있는 고기능제품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지생산 확대를 결정한 것임



## 5 한국관련워치

### □ 엔저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경계

- 도요타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약진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도요타의 중형 세단 캠리의 한국시장 판매가격이 10%인하됨에 따라 5월 판매대수가 4월의 3배로 증가
- 도요타자동차 측은 자동차가격 인하와 엔화 환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측은 도요타가 엔저를 무기로 한국차 공격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
  - 엔화에 대한 원고 현상은 6월 들어 다소 진정되었지만, 그래도 100엔당 1,100원대 원고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1년 전에 비하여 20%이상 높은 수준임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확대로 원고·엔저가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매스컴들이 엔저공습을 운운하면서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
-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판매대수는 도요타의 50배 이상으로 도요타가 아무리 판매를 늘리더라도 규모의 차이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
  - 이 같은 현대자동차의 경계태세는 과잉반응으로 보여 지는데도,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
-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원저를 업고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원고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
  -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생산비율이 약 50%로 일본기업들의 40%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며, 더욱이 국내생산 중 60%이상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움
  - 최근 미국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도 원고와 관계가 있는데, 금년 1~6월 미국의 신차판매대수가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전년동기대비 7.7% 늘었는데도 현대자동차의 판매대수는 1.1% 감소
- 그러나 원인은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다는 것
  -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이 풀가동상태에 있어 증산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다, 한국공장에서는 노사분쟁의 영향으로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일본기업의 공세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고 닛케이는 보도

## □ 미쯔비시화학, 한국에 수처리용 수지공장 신설

- 미쯔비시케미컬 산하 미쯔비시화학이 7월 24일 한국에서 수처리 등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 생산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
- 투자총액은 약 81억엔으로 국내 삼양사와 절반투자로 설립될 합작회사가 운영
  - 미쯔비시화학과 삼양사는 12월에 군산시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자본금은 약 27억엔으로 양사가 절반씩 출자하며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하게 될 신설공장은 2014년 1월 착공, 201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설되는 공장에서는 입자의 형상이 균일한 고부가가치 수지를 생산할 예정으로 아시아시장 확보를 겨냥